順天金氏中央宗親會

宗 訓
1. 崇祖 精神의 高揚
2. 宗族 和睦의 勵行
3. 國家社會에 貢獻

順天金氏宗報

제58호 2008. 11. 14 (금)

順天金氏中央宗親會 발행/ 발행인 : 김종식/ 편집인 : 김봉환/ http://www.schkim.co.kr /138-839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동 101-11호 新和SILK빌딩 2층/전화 : (02)400-2501~2502/FAX : (02)400-2505

順天金門 代議員들
第19期 定期總會 盛大히 擧行

순천김씨 중앙 종친회는 제 19기 정기총회를 2008년 10월 28일 전남 순천시 주암면 주암리 시조묘역 동원재에서 경향각지에서 운집한 100여명의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 되었다.

봉환간사장의 개회사에 이어 국민의례와 시조 및 역대조에 대한 묵념을 올리고 종식 중앙종친회 회장의 인사 말씀이 있었다.

종식회장은 대 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전 종원이 종사에 적극 참여하여 열심히 노력한 결과 대과없이 한해를 결산하게 되어 종친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더욱 굳게 뭉쳐 분발하여 대, 소간에 진행중인 위선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진력을 다하자고 역설하였다.

그리고 대의원등은 항상 잠영세족의 후손으로 태어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귀향하셔서 소속 문중의 지도자로서 조직을 확대하고 종친간에 화합을 주도하고 영광과 발전을 도모하는 주역이 되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어 봉환 간사장의 업무 보고와 경남 감사의 감사보고를 듣고 제19기 결산보고와 제20기 예산심의를 심도있게 심의하여 만장일치로 통과 시켰다.

사업계획에 대한 열띤 질의에 대한 상용 부회장의 자세한 답변이 있었으며 기타 토의사항에서 순김 문중의 발전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 화기애애한 가운데 폐회하였다.

이날 한화그룹회장 승연 종친은 정기총회를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하면서 교통편의를 위해 관광버스를 제공하고 고급 기념 타월을 증정하였다.

주암골 가득메운 順天金門 後裔들
戊子年 秋享大祭 奉行

中央宗親會는 戊子年 秋享大祭를 2008년 10월 29일 전남 순천시 주암면 주암리 순김의 혼이 살아 숨쉬는 시조 묘역에서 경향각지에서 첨례한 300여명의 후손들이 경건하고 엄숙하게 대제를 봉행하였다.

이날 安東을 비롯한 집성촌에서는 관광버스와 승합차를 대절하여 단체로 참례하는 광경은 언어로 형언할 수 없는 참으로 아름다운 미덕이었다.

항상 충과 효 사상을 강조하고 봉사정신을 소중히 여기는 한화그룹 회장 升淵종친은 추모의 꽃바구니를 보내와 헌화하였다.

특히 金海金氏 문중에서 정중히 대제에 참례하고 분향 헌작하여 주셔서 문중의 이름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분정표

시조묘	初獻官	智豪(서울)
	亞獻官	成遠(대구)
	終獻官	鍾福(김해김씨)
	대축관	東晳(경북문경)
제 단	初獻官	商根(천안)
	亞獻官	鍾元(서울)
	終獻官	正雄(대전)

추향대제 헌성금

- 김지호 1,000,000
- 김세연, 김동현, 김동철, 김상근 100,000
- 김학원 100,000
- 김종원 50,000
- 김동춘, 김봉환, 김홍연, 김윤환, 김종훤 100,000
- 김상응, 김상만, 김동욱, 김준연 100,000
- 김인섭 부산종친회장 100,000
- 해남 어사공 문중 100,000
- 김지섭 100,000
- 김경남 50,000
- 김승연 50,000
- 문경종친회 100,000
- 김동석 30,000
- 김동윤 30,000
- 김창연 200,000
- 김광휘 100,000
- 김학순 100,000
- 김연식 100,000
- 대전충남종친회 100,000
- 김병수, 김석재, 김병전, 김길재 100,000
- 김보연 목사공종중 100,000
- 대구명친회 100,000
- 김봉원(횡성공파) 100,000

충정공 추향제 봉행

지난 11月 1日(음 10月 4日) 여주군 가남면 연대리 연대산의 충정공 묘역에서 원근 각처의 백 여인의 후손들이 참례한 가운데 초헌관에 東勳, 아헌관에 鳳遠, 종헌관에 明在, 축관에 春熙로 하여 重溶 집례로 경건하게 제향을 올렸다.

특히 올해에는 많은 부녀 후손이 참사하여 빛을 내었으며 계렬단위로 인사 교례도 있었고 화기애애한 가운데 음복겸 식사를 마치고 귀로에 올랐다.

지평공,도총제공,절재공추향제봉행

순천김씨 지평공파 문중에서는 2008년 10월 30일(음 10月 30日) 충남 공주시 장기면 대교리(윤리재) 선영에서 회장 학원을 비롯 종손인인환 부회장과 전국에서 모인 종친 그리고 감찰공파 문중 춘희회장 외 여러 방손들도 참여하여 엄숙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時享을 봉행했다. 지평공조, 총제공조의 시제에 이어 節齋公祖의 시제는 종원종친의 집례, 초헌관에 達元, 아헌관에 春熙, 종헌관에 龍錫, 축관에 相大종친으로 분정하여 봉행하였다. 이어 계유피화(1453년)시에 아버님의 피격을 몸으로 막고 순절한 참의공조와 아래 三代祖의 제단시제도 엄숙하게 거행되었다.

御史公派 時享祭 奉行

2008년 11 7일(음 10月 10日) 어사공파종친 50여명 참석리에 시향제를 성황리에 엄숙히 거행하였다.

▶ 三代四位 단제헌관
초헌 상용, 아헌 성복, 종헌 상만, 축관 상윤, 집례 찬수

▶ 남은공제헌관
초헌 찬수, 아헌 재희, 종헌 현희, 축관 상실, 집례 상윤

감찰공 추향제 봉행

11月 1日(10月 4日)여주군 가남면 연대리의 선영하에 모신 감찰공 묘역은 지난해 후손들 뜻을 모아 둘레석의의 설치와 묘갈을 수립하는 등 일신하게 단장되어 경건한 분위기에서 초헌관에 東勳, 아헌관에 鳳遠, 종헌관에 重溶, 축관에 春熙로 분정되어 東根의 집례로 한결 뜻 깊은 향사가 봉행되었다.

상의원공 추향제 봉행

지난해 성남시 판교동에서 여주군 가남면 안금리의 목비산 卯좌원으로 이장모신 새 묘역에서 후손들 새로운 마음으로 초헌관 東皓, 아헌관 東先, 종헌관 商應, 축관 東學등이 명재 집례로 경건하게 제례를 봉행하였다. 그리고 음복 좌석에서 공에 대한 추모와 묘역 관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모두 가벼운 마음으로 귀로에 올랐다.

신뢰하고 양보하자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인하여 우리들의 마음은 참 우울하다. 그런데 경제 위기의 중요한 원인이 신뢰의 상실, 곧 불신 때문이라고 한다. 불신은 결국 자신만 이득을 취하거나 살아남고자 할 때 발생하는 것이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로 신뢰를 해야 하는데 문제는 서로가 "믿을 놈이 없다". 고 생각하는 것이다. 위기의 본질은 한 마디로 불신사회이다. 그런데 우리는 생존하기 위해 남을 의심하는 것부터 배워야만 했다. 그리하여 "믿을 놈 하나도 없다". 는 말에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다. 우리 사회는 불신 풍조가 위험 수위에 이르고 있다.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의 가치관 및 사회의식 조사 결과를 보면 모든 국가 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 게다가 언론 매체, 시민단체, 종교단체마저도 신뢰도가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지난 10년간 신뢰도가 가장 많이 떨어진 집단이 국회와 시민 단체라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모두가 자신만이 옳다고 아우성이다. 믿을 놈이 없다고 외치면서 자신은 옳다고 핏대를 올린다.

국민들은 혼란스럽다 못해 이제 무기력증에 빠져들고 있다. 어떻게 자신만 옳은가? 자신만이 옳다는 자체가 옳지 못하다. 그것이 바로 믿을 놈이 없다는 증거 아닌가! 자신의 옳지 못한 부분을 인정하고 서로 보완할 때 성숙한 사회 곧 열린 사회가 이루어진다. 자신이 옳지 못함을 인정할 때 신뢰가 형성된다.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서 단절과 폐쇄성을 너무나 절실히 느끼게 된다. 근대사의 파고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극도로 불신하고 매도하는 시절을 겪었다. 우리 사회에 단절과 폐쇄의 장벽을 쌓아 올리는 불신의 연유는 무엇인가? 여기에는 무언가 ("너 뭔가 음모를 꾸미고 있지?)라는 의심이 깔려 있다. 이는 불안감이라 말할 수 있고 공포심이라 말할 수 있고 피해망상증이라고 말할 수 있다.

희망은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에게 희망은 신뢰와 불신이 균형을 이룰 때 일어난다. 이미 일어난 일 때문에 싸우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미 일어난 일을 미루어 볼 때 앞으로 또 그렇게 될 것이라는 가정을 굳세게 믿기에 결코 용서하지 못하며 양보할 수 없어 싸움질을 하는 것이다. 결국은 일어난 일이 문제가 아니라 다시 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가정이 문제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은 신뢰를 요구하고 신뢰는 양보를 요구한다.

우리의 불신은 애당초 진실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나를 믿으라 하지 말고 먼저 다른 사람을 믿어라! 이것이 예수님이 나 부처님이 가르치신 진리이다.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하는 풍조가 만연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멸망의 징조이다. 누군가 먼저 양보하고 손해를 감수하는 소위 존재론적 모험을 할 때 거기에 신뢰 사회라고 하는 윤리적 사건이 일어난다. 누가 먼저 양보하고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당연히 많이 가진 사람들 그것이 재산이든 권력이든 지식이든 명예이든 뭐든 간에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먼저 양보해야 한다. 그것만이 바로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모두가 살아 날수 있는 길임을 각성해야 할 것이다.

中央宗親會 常任 副會長
金 相 容

신라김씨 선계는 기마민족인가

우리 신라 김씨의 비조(鼻祖)이신 대보공 휘 閼智께서는 하늘에서 내리신 분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오늘날 신라김씨의 선계(先系)는 북방 기마민족계라는 두 가지 설이 있으니 어찌 관심이 아니 가겠는가. 그리하여 이에 그 요지를 적어보고 그와 관련성이 있을까 싶어 신라인의 형성 과정과 고신라문화의 특수성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저 한다.

▣ 신라 김씨는 흉노족의 후예

⊙ **법흥왕은 선비족 모용(慕容)씨의 후예** : 신라 김씨의 기원에 관한 책까지 펴낸 장한식(張漢植)씨의 기록물에 의하면 삼국사기에 일으기를 "법흥왕의 이름은 김원종(金原宗)이라 하고, 중국의 책부원구(册府元龜)에 모진(慕秦)이라 했는데..." 란 말이 있다 하였고, 중국의 고서인 양서(梁書), 남사(南史) 또는 통전(通典)에도 모진(慕秦) 또는 모태(慕泰)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울진군 봉평리에 있는 신라비(碑)는 법흥왕 11년에 세운 비로 법흥왕을 모즉(牟卽)으로 전고 있으니 모(牟)는 모(慕)와 음이 같으니 법흥왕의 성은 金(Kim)이 아니고 慕(Mo)라는 것이다. 중국 역사서에 신라왕의 성을 金(김)으로 실린 것은 24대 진흥왕 때 중국에 사신을 보낸 서기 564년의 일이라고 한다. 그러면 어찌하여 김씨로 바뀌었을까. 법흥왕대에 불교를 공인하고 율령(律令)을 반포하는 등 개혁정치를 하여 중국문화를 받아들여 중국식 성(姓)으로 개역(改易)한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신라김씨의 기원은 흉노계인 선비족의 모용(慕容)씨 계에서 찾아야 한다고 하였다.

⊙ **신라 김씨는 김일제(金日磾)의 후예** : 사계에서 거론되고 있는 또하나의 설은 흉노족-훈(Hun)족-출신의 김일제계라는 것이다. 그 근거로는 30대 문무왕(文武王)의 능비(陵碑) 조각에서 "투후제천지윤전칠엽... 성한왕(秺侯祭天之胤傳七葉 ... 星漢王)"이라는 비문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 글을 풀이해 보면 "하늘에 제사 올리는 투후의 후손이 7대를 이어 전하는...그 바탕이 하늘에서 내리시고.."라고 해석할 수 있고 그는 휘 알지(閼智) 공 또는 미추왕(未鄒王)을 가르키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는 김일제로부터 휘 알지공까지의 연수가 약 180년이니 7대 정도의 연간이고 미추왕은 시조의 7세손이 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면 김일제는 누구인가. 흉노족의 휴도왕(休屠王)의 세자로 전한 무제(武帝) 때에 흉노가 토벌 당할 때 (B.C. 122) 모친과 함께 끌려와서 성실하고 재주가 있어 무제는 그 아비를 "金人의 王"으로 대우하여 성을 김(金)씨로 하사하고 후일 공로가 잇어 투(秺)지방을 다스리는 투후(秺侯)의 벼슬을 받은 인물이다.

위와 같이 우리 신라 김씨의 선계에 관한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위의 선비족설은 연대등으로 보아 모호한 점이 있으나 아래에 말하는 김일제계라는 설은 그냥 보아 넘길 이야기가 아니라고 사료된다.

▣ 신라국민의 형성과정

그 옛날 우리 민족은 "한국고대사(千寬宇저)에 보면 고시베리아계 즉 알타이족 등이 이동하며 융합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였다. 다시 말해 중국 북쪽지역의 원시 수렵생활을 하던 종족이 좀 더 나은 수렵생활을 위한 지역을 찾아 동쪽으로 그리고 남쪽으로 이동하며 융합하여 하나의 민족으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옛 신라권인 경상도지방에서도 고인돌(支石墓) 또는 조개무덤(貝塚)이 발견되고 있는 것은 선사시대(先史時代)부터 사람이 살았었음을 알수있는 일이고 그 이후 역사시대(歷史時代)에 들어서는 어떠한 종족이 신라지역으로 유입되었나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한국사 이야기"(李離和저)에 보면 삼국사기의 기록으로 "진(秦)나라의 통일전쟁 시 난을 피해온 사람들이 많았다." 하였고 삼국지(三國志)와 위지(魏志)의 글을 인용하여 "진나라의 만리장성 또는 아방궁 등의 축조 노역에 사달리다 도망온 많은 진나라인들에게 마한(馬韓)은 동쪽(辰韓) 땅을 떼어 주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기원전 2세기 중반에 한(漢)나라의 무제(武帝)에게 고조선(위만조선)이 멸망할 때에는 많은 유민이 생겨서 그들 중 진한으로 들어간 난민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

그 후 전한(前漢)의 무제(武帝)때 우리나라에 설치한 낙랑군(樂浪郡)이 전게한 "한국사이야기"에 보면 삼국지 동이전(東夷傳)에 "삼한(馬韓, 辰韓, 弁韓)의 나라들이 강성해지고, 낙랑은 광무제(光武帝) 이후에는 쇠약해져서 낙랑에서는 제어할 수 없게 되자 많은 낙랑인이 삼한 땅으로 옮겨갔다."고 하였다.

신형식(申瀅植)교수의 모좌담회에서의 말로는 "삼국사기에 보면 서기 37년 대무신왕(大武神王)이 낙랑을 정벌할 때 5천인이 신라에 항복해 와서 6부에 나누어 살게 되었다"고도 하였다. 그리고 서기 313년에는 고구려의 미천왕(美川王)에게 낙랑이 망하게 되었고 당시 많은 난민들이 또 삼한 땅으로 흘러들어 갔으며 그 낙랑인 중에는 북방계(北方系) 사람이 많았었다고 한다.

그리고 김병모(金秉模)저 "금관의 비밀" 등에 보면 기원후 20년경 왕망(王莽)이 찬탈한 신(新)나라가 광무제(光武帝)에게 멸망할 때 숙청당한 사람이 많았는데 그 중에는 왕망에게 협력한 김일제(金日磾)의 후손들과 일단이 진한으로 들어왔을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전 방송인 장한식(張漢植)씨에 의하면 "月刊朝鮮(1999년 9월호) 서기 342년 선비(鮮卑)족의 모용황(慕容皝)군이 고구려를 침공할 때 남로군은 대승하였으나 북로군은 대패하여 그 패잔병이 옛부터 열려있는 우리 동해안 루트를 통해 신라로 들어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신라인은 여러 시기 여러 지방에서 유입되어온 외방인(外邦人)과 선사시대부터 살아온 토착인(土着人)이 융합하여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유의해 보아야 할 것이 있으니 이렇게 유입된 사람들 중에는 북방의 기마민족계가 많았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고대 신라문화는 고구려나 백제의 문화와 달리 북방민족의 문화에 가까운 특수한 문화를 꽃피웠던 것이다.

▣ 고대 신라문화의 특성

⊙ **금관(金冠)** : 예나 지금이나 황금을 좋아하지 않는 민족이 어디 있겠는가. 그 중에도 금(金)을 좋아하고 귀하게 여기는 종족은 시베리아 초원지대의 종족이라 하며 김병모 교수의 "신라금관의 비밀"에 보면 신라인의 금에 대한 애착은 유별나서 왕족이나 귀족들은 금으로 장식하고 살았다고 한다.

신라의 금관은 나무를 모티브로하여 구성되어 있어 수목관(樹木冠)이라고도 하고, 쓰고 걸으면 부착물들이 흔들려서 보요관(步搖冠)이라고도 하는화려하고 독창적인 세계적 명품인 것이다. 그 구조를 보면 금판으로 이루어졌고 관테에 근간이 되는 나무를 직각수지(直角樹枝)형으로 디자인하여 앞과 옆면에 세우고 뒷면에는 녹각형의 2개 입식(立飾)을 세웠으며 열매를 상징하는 곡옥(曲玉)과 나뭇잎을 상징하는 작은 금판을 무수히 금실로 매어 달았다. 이것들은 움직이면 흔들려서 고은 음향과 반짝반짝 빛을 낸다. 그리고 관테좌우에 여러 가지 잔소재를 달아 늘어뜨리는 수식(垂飾)을 달아 흔들리게 하였다.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구성된 이 금관은 세상에 유례가 없는 독창작인 금관이라고 논자(論者)들은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

⊙ **적석목관분(積石木槨墳)** : 경주 시내로 들어가면 거대한 분묘들이 보인다. 분묘는 그 민족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전통인 만큼 그 형태는 민족 고유의 전통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거대한 분묘는

소위 적석목곽분으로서 왕이나 고위 귀부인의 분묘이며 아래 그림과 같이 목재(木材)로 곽(槨)을 축조하고 그 안에 관(棺)과 부장품을 놓고 목곽위에 돌무지를 쌓는다. 그리고 그 위를 흙으로 봉분하고 떼를 입혀 마감하는 것이다. 이러한 묘제(墓制)는 전게한 서책들에 의하면 유라시아 북방민족 특히 초원지대 사람들의 묘제라고 하는데 고구려나 백제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신라에서는 왕을 마립간(麻立干)이라고 하던 4-6세기 즉 김씨 왕조때 축조된 것이라고 한다.

⊙ **백화(白樺)** : 시베리아이 광할한 땅은 평지초원임을 우리는 사진으로 흔히 볼 수 있다. 그런 한랭지방에는 나무가 잘 자라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간혹 그런 지방에 나무숲이 있는 그림을 볼 수 있으니 그 나무들은 백화(白樺) -자작나무- 인 것이다. 그래서인지 기마 민족들은 나무를 귀히 여기고 숭배하며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다고 한다. 신라인들이 나무를 금관의 모티브로 삼은데는 그들의 사유세계의 한 단면이 아니겠는가. 신라인들도 이 백화나무를 귀히 여기고 그 껍질을 벗겨서 모자 등 생활용품을 만들어 쓰기도 하였으며 천마총에서 나온 천마그림도 자작나무 껍질에 그린 것이라 하지 않는가.

⊙ **각배(角杯)** : 각배(뿔잔)은 원래 동북시베리아의 스키타이족과 훈족인 기마민족 등이 전장(戰場)에서 격려의 술잔으로 쓰이면서 행운을 주는 잔으로 발전하였으며 그들은 각배가 초자연적인 그 무엇을 지닌 것으로 보고 지배층과 연관시킨 것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석탈해(昔脫解) 이사금(尼師今)이 처음 사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고분 등에서 출토되고 있다. 고구려, 백제 지역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신라와 가야 지역에서만 발견되었다고 한다.

이 밖에도 신조(神鳥)사상이나 애마(愛馬)정신 등 여러 면에서 북방문화와 유사한 면을 고대 신라문화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으니 신라 지배층이 북방민족계였으리라 하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위에 개술한 신라인의 형성 상황과 신라 문화의 특성을 감안해 보면 신라김씨의 선계가 북방의 기마민족계였음을 부정할 수만은 없으리라 생각된다.

顧問 金明在

존재 그리고 행복!

우리는 누구나 행복하기를 희망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나 행복을 느끼며 만족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겉으로 보기에는 잘 사는 것 같지만 속사정을 알아보면 근심걱정이 없는 집이 없다. 서로 상반된 상대적인 쌍으로 되어진 것이 존재원리기 때문이다. 행복과 불행이 짝이라서 날이 가면 밤이 오듯 행복 뒤에는 늘 불행이 쫓아 다닌다. 하루가 존재하기 위해서 밤과 낮이 있듯이 손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손바닥과 손등이 있어야 하는 것. 이것이 존재원리다.

밤과 낮이라는 둘이 합쳐 하루라는 하나를 이루니 하루 속에는 둘이 들어있어 하나이면서 둘이라 하는 것이고 둘이 합쳐 하나를 이루었으니 둘이면서 하나라 하는 것이다. 이것은 "一卽多 多卽一"이라 하는 것이고 그 본질을 不二라 하는 것이다. 존재원리 속에 만법이 하나로부터 생겨나고 만법은 하나로 돌아간다는 자연의 이치가 들어 있는 것이다. 둘이 합쳐진 하나를 전체라 하고 전체를 이루는 둘을 개체라 하는데 전체는 불변의 원리를 따르고 개체는 가변의 원리를 따른다. 그래서 하루 24시간은 언제나 일정하지만 밤낮의 길이는 늘 변하는 것이다. 세상에는 존재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그들은 서로 개체이면서 전체로서, 전체이면서 개체로서 작용하기에 변하는 속에 영원성이 이어지는 것이다. 존재하는 것은 이처럼 분명히 둘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전체를 보지 못하고 한 쪽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전체가 아닌 개체적 삶을 살 수 밖에 없는 것이며 개체적인 것은 항상 변하는 것이니 변하는 것은 참이 아니기에 우리의 삶을 허상이라 하는 것이다. 누가 말했던가! 일장춘몽이라고..

보여지는 것만 보는 눈을 肉眼이라 한다. 心眼이 열려야 보이는 것 넘어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다. 心眼을 열 수 있는 길은 언어 문자로 표현될 수 없는 깨달음 그 자체이기에 깨달음을 얻은 성현들께서는 말씀을 믿으라고 할 뿐이다.

心眼이 뜨이면 보이지 않는 마음을 볼 수 있으니 마음을 보는 것이 見性이고 見性이 깨달음인 것이다. 존재원리에 의하면 보이는 것 넘어에 분명히 보이지 않는 것이 있음에도 우리는 그 있음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혼이 있다 없다, 하느님이 있다 없다, 혼돈 속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肉眼으로는 전체를 볼 수 없다. 동시에 앞과 뒤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생은 이것과 저것이 서로 다기기에 둘이라 하고 깨달은 자는 전체를 보기 때문에 이것과 저것은 같은 하나로 보는 것이다. 깨달은 자는 중생과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이 깨달은 자가 은둔생활을 하고 침묵하게 만드는 이유인 것이다.

성현들은 자연을 스승으로 한다. 예수께서도 참된 스승은 하느님 한분 뿐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우주자체가 하느님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연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소리 없는 말씀을 듣는다. 중생은 한쪽만 보기 때문에 늘 변하는 허상 속에서 살지만 깨달은 자는 전체를 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참 속에서 산다. 허상 속에서 사는 것이 참 속에서 사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 새로 태어나는 부활인 것이다. 전체의 속성은 무심의 자리요 불고불락의 자리며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중도의 자리다. 그 자리가 부처의 자리요 자연으로 돌아가는 도의 자리요 하느님의 자리인 것이다. 언어문자로 표현될 수 없기에 그 자리를 깨우쳐 주려고 석가세존께서, 예수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많은 비유를 들어 설명했는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우리들 중생은 그 분들이 남겨주신 자비와 사랑의 가르침을 마음깊이 새기고 감사하며 살아갈 일이다.

사람 몸 받아 태어나기 어렵고 바른 법 만나기 어렵거늘 어찌 탐욕에만 집착하여 서로 다투고 그릇되게 사는가? "사랑하면 행복을 느끼고 미워하면 분노가 나와 남을 불행으로 이끈다." 함을 알고 믿는다면 늘 마음을 살펴서 사랑하는 마음이 가슴에 머물도록 깨어 있어야 할 것이고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어라." 고 하는 황금율을 실천하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비결인 것이다.

圓— 김광연

음양에 관한 연구

음양의 개념

음양의 모체는 태양이다. 태양열 E로 발생되는 모든 상대적 상황을 열E가 큰쪽이 양, 작은 쪽이 음이다.

개념에 따른 음양분류(예시)

음	수렴, 수축, 응집, E감소, (-), 女, 어둠, 밤, 작다, 오목, 낮다, 물, 바다, 슬픔, 분노, 차다, 右, 下, 부정, 혈
양	분열, 확산, 팽창, E증가, (+), 男, 밝음, 낮, 크다, 볼록, 높다, 불, 산, 기쁨, 사랑, 덥다, 左, 上, 긍정, 기

6음6양

매월 증가하고 감소하는 태양열E 단위를 1이라 했을 때 1월부터 6월까지 증가한 양의 값은 6양, 7월부터 12월까지 감소한 음의 값은 6음이다.

한국지표면의 월별 음양 값

월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음	5	4	3	2	1	0	1	2	3	4	5	6
양	1	2	3	4	5	6	5	4	3	2	1	0

음양값 변화의 특징을 보면 3개월을 주기로 음양값이 같아지기도 하고 음양값이 극대 극소로 되면서 순환한다. 이처럼 각각 다른 특징을 갖는 음양값 만으로 이루어진 개체는 서로 다른 특징을 갖는 재료로 만들어졌으므로 질이 다르게 되는데 이를 체질이라 한다.

음양값에 따른 체질 분류

生 月	1,2,3	4,5,6	7,8,9	10,11,12
계절(절기)	봄(입춘~입하전)	여름(입하~입추전)	가을(입추~입동전)	겨울(입동~입춘전)
오행	木	火	金	水
음값	3	1	1	5
양값	1	5	3	1
체질명	소양	태양	소음	태음

체질별 장기의 허실

장기의 작용은 음양값에 따라 정해지며 성향에 따라 크게 네 종류로 구분된다.

체질이 타고 나는 것이므로 한 개체는 허, 실의 장기를 갖게 된다.

체질	소양 木	태양 火	소음 金	태음 水
작용	분열	확산	수렴	응축
타고난 강한장기	간-혈액생산, 공급 담-담즙생산공급	심장-혈액확산 소장-음식물분해	폐-공기흡수 대장-양분흡수	신장-좌신수-精 우명문화-氣 방광-오줌
실한장기	심장, 소장	폐, 대장	신장, 방광	간, 담
허한장기	폐 대장	간 담	심장 소장	심장 소장
	신장 방광	신장 방광	간 담	폐 대장

계절에 따른 체질별 음양비

타고난 체질은 변하지 않지만 월별로 자연의 음양값이 변하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 각 장기의 기능은 변화 될 수밖에 없다.

生月	1,2,3		4,5,6		7,8,9		10,11,12	
계절	봄 木		여름 火		가을 金		겨울 水	
음양비	음	양	음	양	음	양	음	양
소양	3	1	2	3	1	1	4	1
태양	2	3	1	5	1	4	1	1
소음	1	1	1	4	1	3	3	2
태음	4	1	1	1	3	2	5	1

계절에 따라 음양값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허한 장기에 이상이 생길 가능성이 크므로 보호해주는 것이 건강관리의 비법이다.

음양의 법칙

* 음 → (-)
* 양 → (+)

1. (-) + (+) → 인력(상생)
2. (-) + (-), (+) + (+) → 척력
   약간의 시기 질투는 하나 그런대로 어울린다.
3. (-) + (+), (+) + (+), (-) + (+) → 여기에 (-) 또는 (+)가 접근하면 음과 양의 성질이 복잡하게 변하고 상극이 생겨난다.

孝에 대한 小考
孔子의 思想 中에서

효도(孝道)란 말은 현대인들에게 있어서와 필자로서도 유교(儒敎)의 문치주의(文治主義: 학문과 법령으로 다스리는 정치)의 씁쓸한 유물(遺物)로서 관심 밖으로 돌리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현대문명이 여러 가지로 위험하고 어려움을 극복해 가는 방책으로서 효도는 근원적인 처방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동안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또한 정보화 시대에 살면서 조상들이 수천년을 두고 이루어 온 체계를 무참하게 흩으러 놓은 셈이다.

그렇지만 동남아 여러나라 중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은 아직 추석명절을 정하고 조상의 묘소를 찾아가 새곡식으로 만든 음식을 차려놓고 조상의 은덕(恩德)을 기리고 절을 하고 친척과 형제들이 대화를 나누는 것이 전체는 아니지만 지속되는 것은 좋은 효(孝)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자식을 기른 어머니는 지금은 가전제품이 발달해서 고생을 다소 덜었다고 하겠으나그야말로 소설같은 인고(忍苦)를 통해 아이들을 길러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고마움에 감사해서 보답코저 하는 자식들이 있는가 하면 요즘은 하나 둘만 낳아서 기른 탓인지 저 밖에 모르는 세대가 늘어간다고 한다. 이런 일은 서양의 신세대들의 몸짓에서 유래하는 영향이 크다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모범적인 인간상(人間像)과 효자상(孝子像)에 대한 평가기준을 복잡하고 애매한 것으로 만들고 있다고 하겠다.

오래된 옛날의 사례이지만 이북 평양에 효자형제가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남쪽 낙동강 근처에 도조(賭租:논 밭세의 나락)을 받으러 갔다가 그만 도조를 실은 배가 풍랑에 뒤집혀 익사함으로써 두 형제는 아버지의 시신을 찾으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였지만 찾을 수가 없어서 생각 끝에 아버지 생족 시에 애정의 징표로 아버지 금니를 빼 간 기녀(妓女)를 알게 되어 쌀 백 석을 주고 망부(亡父)의 유일한 부분인 그 이를 구득(求得)하여 놓고 장례를 지내고 귀하게 보관했다고 전해 온 미담이 있다.

다음은 주요 종파의 효에 대한 의의(意義)를 찾아 보기로 하겠다.

먼저 노자(老子)의 가르침을 믿는 도가(道家 Taoist)의 도덕경을 보면 너무 설명이 길어서 줄여서 말하면 인의(仁義)를 초월한 자연에서 나오는 부자자효(父慈子孝)를 근본으로 하는 지친(之親)의 화목에서 효자(孝慈)를 구한 것이라고 본다.

다음 불교(佛敎)에서 보는 효(孝)의 의의(意義)는 불설(佛說) 은중경(恩重經)에서 부모은(父母恩) 중생은(衆生恩) 국왕은(國王恩) 삼보은(三寶恩)의 사은을 말한 것 중에 부모에 대한 보은(報恩)을 제일로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 기독교에서 보는 효의 의미는 전에도 들은 바 있겠으나

첫째로, 구약성서에서나 신약성서에서 다같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효행으로 보았다(구약 출애굽기 20장) (마태복음 12장 4절, 19장19절). 효는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이고(골로새 3장20절) 효는 부모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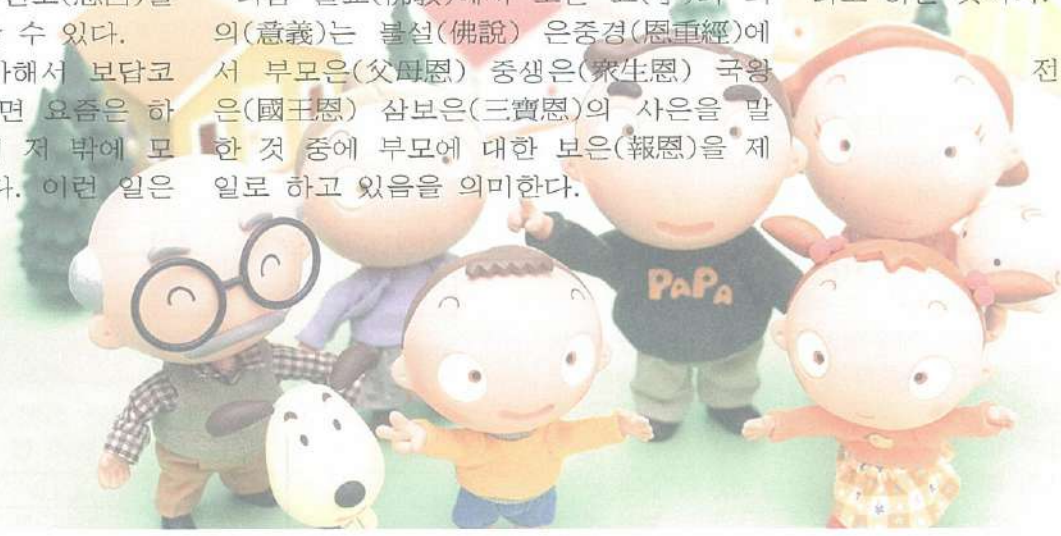
그러나 부모는 자녀(子女)를 항상 사랑하라는(잠언 29장) 등을 찾아 볼 수 있다.

서구사회에서의 효의 의미는 영어에서 효를 뜻하는 말로 Filial-piety가 있다.

이 말은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부모에 대한 자식답게(Filialy) 경건하게 충성과 사랑으로 부모에게 섬김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효의 실천에 대해 말한다면 효의 실천에는 부모의 공경으로부터 다른 부모에게로 추급(推及)하는 것과 가정윤리인 효(孝)로부터 사회, 국가적인 윤리인 (忠)에로까지 추급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근본적인 것은 아들이 부모에 대한 행위함이 아니라 부모가 아들에 대한 행위가 선행됨으로써 사랑의 호혜호응(互惠互應)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전 대구 CBS 국장 김봉배



순천김씨 문경시 종친회 임원명단

회 장	김승연(金承淵) 054)552-3550 011-233-4894 경북 문경시 산양면 반곡리 376번지	부회장	김병철(金秉喆) 054)571-3913 011-9730-3913 경북 문경시 가은읍 전곡3리 769번지
총 무	김인호(金仁浩) 054)533-7969 010-4511-7969 경북 문경시 산양면 반곡리 406번지	재 무	김병규(金炳圭) 054)553-8810 010-6533-1709 경북 문경시 흥덕동 우방아파트 101동 1303호
감 사	김길영(金吉永) 054)552-2203 010-3517-9480 경북 문경시 흥덕동 창신아파트 104동 213호	감 사	김창환(金昌煥) 054)553-5471 011-539-8404 경북 문경시 흥덕동 우방아파트 102동 301호

회비 입금 현황(인명부록)

2008년 9월부터 ~ 2008년 10월 31일까지

부회장

1. 김진석 2008. 9. 17 전라남도 해남군
2. 김지호 2008. 9. 30 서울특별시 용산수
3. 김지섭 2008. 10. 29 충청남도 보령시

고 문

1. 김원걸 2008. 9. 9 경상북도 안동시

대의원

1. 김광주 2008. 9. 2 전라북도 전주시
2. 김상율 2008. 9. 8 서울특별시 강동구
3. 김해수 2008. 9. 22 부산광역시 남구
4. 김유환 2008. 9. 23 충청남도 부여군

운영위원

1. 김학순 2008. 9. 23 전라남도 순천시

간 사

1. 김동원 2008. 8. 21 서울특별시 구로구

감 사

1. 김경남 2008. 10. 29 경기도 안산시

이 사

1. 김상우 2008. 9. 3 서울특별시 중랑구
2. 김기연 2008. 9. 4 충청북도 청주시
3. 김동준 2008. 10. 7 충청남도 천안시
4. 김명수 2008. 10. 23 서울특별시 동작구
5. 김종원 2008. 10. 28 경기도 양주시
6. 김구연 2008. 10. 30 서울특별시 강서구
7. 김영규 2008. 5. 27 경기도 안산시

회 원

1. 김병목 2008. 8. 2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 김동연 2008. 8. 27 경기도 고양시
3. 김성재 2008. 8. 28 경기도 이천시
4. 김종하 2008. 9. 1 서울특별시 구로구
5. 김지균 2008. 9. 2 인천광역시 부평구
6. 김재현 2008. 9. 1 광주광역시 서구
7. 김익영 2008. 9. 2 서울특별시 서초구
8. 김이연 2008. 9. 2 경기도 용인시
9. 김창환 2008. 9.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0. 김영호 2008. 9. 2 전라남도 영암군
11. 김귀원 2008. 9. 2 전라남도 담양군
12. 김남수 2008. 9. 3 경기도 연천군
13. 김길연 2008. 9. 3 부산광역시 동구
14. 김재순 2008. 9. 4 서울특별시 마포구
15. 김은식 2008. 9. 4 경기도 용인시
16. 김종삼 2008. 9. 2 경상북도 안동시
17. 김남식 2008. 9. 2 전라남도 고흥시
18. 김동석 2008. 9. 3 충청남도 금산군
19. 김재명 2008. 9. 4 제주도 서귀포시
20. 김해재 2008. 9. 4 경상남도 마산
21. 김영수 2008. 9. 3 경상북도 성주군
22. 김성연 2008. 9. 5 울산광역시 남구
23. 김택수 2008. 9. 5 경상북도 구미시
24. 김광석 2008. 9. 5 전라남도 무안군
25. 김동인 2008. 9. 5 경상북도 문경시
26. 김호남 2008. 9. 8 경상북도 영주시
27. 김중권 2008. 9. 9 경기도 김포시
28. 김건호 2008. 9. 9 서울특별시 강남구
29. 김상용 2008. 9. 9 제주도 제주시
30. 김동근 2008. 9. 10 경기도 시흥시
31. 김귀순 2008. 9. 10 서울특별시 서초구
32. 김귀영 2008. 9. 10 전라북도 전주시
33. 김선균 2008. 9. 10 강원도 춘천시
34. 김방헌 2008. 9. 10 경상북도 안동시
35. 김종훈 2008. 9. 12 강원도 강릉시
36. 김진오 2008. 9. 16 강원도 삼척시
37. 김순영 2008. 9. 16 충청남도 금산군
38. 김강원 2008. 9. 16 전라북도 익산시
39. 김성환 2008. 9. 17 대구광역시 동구
40. 김정희 2008. 9. 18 충청북도 청주시
41. 김동준 2008. 9. 18 서울특별시 도봉구
42. 김이균 2008. 9. 19 서울특별시 노원구
43. 김종원 2008. 9. 19 전라남도 담양군
44. 김춘희 2008. 9. 17 경상남도 사천시
45. 김종희 2008. 9. 19 광주광역시 북구
46. 김동희 2008. 9. 22 서울특별시 은평구
47. 김윤일 2008. 9. 22 인천광역시 간석동
48. 김용옥 2008. 9. 18 전라북도 완주군
49. 김기준 2008. 9. 18 전라북도 진안군
50. 김만희 2008. 9. 19 경상북도 문경시
51. 김종구 2008. 9. 22 전라북도 전주시
52. 김길옥 2008. 9. 24 서울특별시 관악구
53. 김종락 2008. 9. 24 경기도 이천시
54. 김지일 2008. 9. 24 경기도 광명시
55. 김용연 2008. 9. 25 서울특별시 성북구
56. 김성희 2008. 9. 25 경기도 파주시
57. 김학주 2008. 9. 26 경기도 남양주시
58. 김종환 2008. 9. 26 경기도 안성시
59. 김상욱 2008. 9. 25 경상북도 영주시
60. 김성근 2008. 9. 26 서울특별시 가양동
61. 김 진 2008. 9. 24 경상북도 안동시
62. 김임용 2008. 9. 26 대구광역시 동구
63. 김상희 2008. 9. 26 광주광역시 동구
64. 김성희 2008. 9. 29 서울특별시 종로구
65. 김영도 2008. 9. 29 경기도 안성시
66. 김성연 2008. 9. 29 경기도 용인시
67. 김문환 2008. 9. 2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8. 김인좌 2008. 9. 29 충청남도 부여군
69. 김유동 2008. 9. 29 부산광역시 남구
70. 김동찬 2008. 9. 30 서울특별시 마포구
71. 김재환 2008. 9. 30 강원도 원주시
72. 김남술 2008. 9. 29 전라남도 해남군
73. 김종철 2008. 9. 30 전라남도 여수군
74. 김병현 2008. 9. 30 전라남도 영암군
75. 김학영 2008. 10. 2 대전광역시 서구
76. 김기환 2008. 10. 1 경상북도 문경시
77. 김동영 2008. 10. 2 경기도 평택시
78. 김완희 2008. 10. 8 서울특별시 동작구
79. 김종구 2008. 10. 13 경상북도 예천군
80. 김서연 2008. 10. 21 서울특별시 중랑구
81. 김동한 2008. 10. 21 경상북도 영주시
82. 김상식 2008. 10. 22 대구광역시 동구
83. 김윤영 2008. 10. 27 인천광역시 동구
84. 김동현 2008. 10. 27 서울특별시 성동구
85. 김창희 2008. 10. 31 경상북도 구미시

무명인

1. 2008년 9월 1일 농협/신도화전
2. 2008년 9월 1일 우리은행/구월중앙지점
3. 2008년 9월 1일 농협/규암농협
4. 2008년 9월 2일 영주축산/휴천농협
5. 2008년 9월 2일 농협/황산농협
6. 2008년 9월 4일 가평군농협
7. 2008년 9월 4일 농협/병영상방
8. 2008년 9월 5일 농협/해남농협
9. 2008년 9월 11일 농협/봉화농협
10. 2008년 9월 22일 웅천농협
11. 2008년 9월 22일 완주봉동/우체국
12. 2008년 9월 29일 벽제농협
13. 2008년 10월 27일 우리은행/방배동지점

길게 보는 길

어려울 때일수록 멀리 보라고 합니다.
한화는 지금 '길게 보는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Your Dreamworld
Hanwha